

중앙일보

연내: 02-761-5114 고객센터: 1588-3600

당기 4341호 (총 4월 29)

서울 호린후비 17/25℃ 인천 호린후비 16/23℃ ▶ 날씨 11면

joins.com

제13492호 43판 2008년 6월 2일 월요일

중앙일보 제13492호 40판

오피니언

2008년 6월 2일 월요일 3

탁경현

“잠시 목상에 잠겨 있던 미쓰야미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쭈어 쭈어 짜듯 비통한 목소리였다. 도매와 두 딸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이내 노래는 사라지고 오열이 방 안을 마쳤다. 어느새 네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1945년 5월 10일 밤, 일본 가고시마현 지란 비행기지 인근의 식당 도미야에서 있었던 실화를 묘사한 논픽션 단막극 **미쓰야미** (여카바네 레이코 지음, 2001년)의 한 대목이다. 미쓰야미는 이튿날이면 불귀의 객이 될 가마카제 특공대원이었고, 도매는 그가 유일하게 짐을 붙였던 단골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였다. 다음 날 아침 미쓰야미는 예정대로 250kg의 폭탄을 전투기에 싣고 출격했고, 560km를 날아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25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대일본제국 육군소위 미쓰야마 후미히로 (光山文庫)의 본명은 탁경현(卓庚鉉)이었다. 지란 비행장에서 일왕이 내린 술 한 잔에 일기일항(一日一航)의 결의를 다지고 목숨을 바친 자살특공대는 모두

103명이었다. 그 속에 탁경현을 포함한 조선인 11명도 들어 있다. 탁경현은 견습사관 시절부터 조선인임을 밝혔다고 한다. 그의 혼은 아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이따금 일본 총리의 참례를 받기도 한다. 비행 모를 착용한 그의 사진도 신사 한쪽의 유수칸(遊就館)에 걸려 있다.

지난달 탁경현의 기일에 맞춰, 그의 고향인 경남 사천에 위령비를 세우려던 일본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위령비 건립이 한·일 간 화해를 위한 작은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탁경현을 모델

로 한 영화 **호타루** (다카쿠라 겐 주연)에서처럼 말이다. 영화에서는 가마카제 특공대에서 조선인 소위의 부하였던 일본인 생존자가 상관의 유품을 안고 한국을 찾고,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유족들이 유품을 받아들임으로써 화해가 이뤄졌다.

하지만 현실의 결말은 정반대였다.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반대 시위에 부딪쳐 행사는 취소되고 위령비는 철거됐다. 고향에서조차 탁경현은 일제 협력자일 뿐이었다.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이번 사건은 일러준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진실 어린 사죄와 용서의 씨앗들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냈던 건, 마지못해 골짜기엔 탁경현 또한 역사의 희생양임에 틀림없다. 죽음을 하루 앞둔 불면의 밤에 조국을 그리며 아리랑을 불렀던 그가 이튿날 **전쟁과하 한새**를 부르고 죽음의 환로로 돌진해야 했던 건 분명 배극이다. 질곡과 광기의 역사 앞에서 무릇 인간의 운명은 외소하고 나약한 법이다. 탁경현의 덧없는 죽음은 그래서 연민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에영준 정치부문 차장**

본수대



SHOW 휴대폰으로 읽는 영문 사설·본수대

7월 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 이후까지
**3232+@